

A~Z로 풀이하는 남아공 월드컵

- A** African power(흑 아프리카) = 1958년 스웨덴 월드컵과 2002 한·일 월드컵을 제외한 16차례의 월드컵에서 개최국 국가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만큼 흑 아프리카가 크다는 뜻이다. 물론 이번엔 출전하는 아프리카 팀이 우승을 노리기에 다소 무리지만 처음으로 4강 진출을 이뤄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 B** B Trio(부상으로 낙마한 빅스타 3인방) = 전통의 유럽 강호가 전력의 중심으로 될 수 있는 선수들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공교롭게 이들의 성은 모두 B로 시작한다. 잉글랜드의 데이비드 베컴·독일의 미하엘 발라크·프랑스의 카미르 벨레가 그 주인공이다.
- C** Captain(각 국 주장) = 주장은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하는 막중한 존재다. 이 때문에 경기 전체를 두루 볼 수 있는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맡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박지성·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이탈리아의 파비오 칸나바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 D** Death Group(죽음의 조) G조 = 브라질·포르투갈·코트디부아르·북한. 만약 한국이 북한이 속한 G조였다면 16강을 꿈꿀 수 있을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강팀 3개국이 한 조에 풀린 G조는 그래서 죽음의 조다. 16강에 오를 수 있는 팀은 단 2팀. 만약 북한이 16강에 오르고 싶다면 세계적 강팀 돌을 떨어뜨려야 한다.
- E** Empty Stadium(텅빈 관중석) = 입장권이 안 팔려 슈퍼마켓에서 20달러에 팔리고, 일부 경기에는 무료입장까지 검토돼야 했던 남아공 월드컵. 월드컵 하면 무조건 매진되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FIFA 관계자들은 작은 맘을 출했다. 그러나 다들 예감을 덜었을 만큼 앞으로 티켓 판매 열기가 뜨겁다.
- F** Family business(가족이 월드컵 무대) = 디에고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감독이 리오넬 메시보다 더 흔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수는 세르히오 아게로다. 사위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 감독과 마르크 반 볼름은 장인과 사위 사이다. 독일의 제프 보야링과 가나의 케빈-프란스 보야링은 형제지만 다른 국가로 출전한다.
- G** Golden ball(골든볼) = 월드컵 최우수선수에 주어지는 골든볼은 82년 이탈리아 대회에 설정됐다. 2006 독일 대회까지 모두 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3개 대회에서 모두 준우승팀 선수가 상을 받아 '위로상'이 되어버렸다.
- H** High Altitude(고지대 적응이 관건) = 한국-벨라루스 경기에서 드러났듯이 고지대 적응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고지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잘 싸우려면 고지 적응은 필수다.
- I** Invincible armada(무적함대 스페인) = 2008년 유럽선수권 우승컵, 세계 최고의 축구강국으로 불리면서도 변변한 상이 없었던 무적함대 스페인이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상이다.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받고 있어 사상 첫 우승에 대한 꿈을 부풀리고 있다.
- J** Jinx(징크스) = 월드컵에는 유독 징크스가 많다. 디펜딩 챔피언이 다음 대회 개막전에서 고전하는 징크스도 있다. 최근 9차례의 개막전에서 전 대회 우승국은 3승3무3패로 그저그런 성적에 그쳤다. 82년 이후 계속된 유럽-남미 교차 우승 징크스, 스페인(2패), 이탈리아(1승3패)의 승부차기 징크스, 개최국은 무조건 16강에 오른다는 것도 징크스 아닌 징크스다.
- K** Killers(최고의 골잡이) = 드복베(코트디부아르)·웨인 루니(잉글랜드)·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다비드 비아(스페인)·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카카(브라질) 등은 이번 대회 강력한 득점왕 후보들이다.
- L** Lion king(라이언 킹) = 이종국이 월드컵에 나선다. 한국 축구팬들 예전 20명 중 1명일지 몰라도, 그에겐 축구인생의 마지막 월드컵 출전이다. 12년 묵은 한을 풀 이종국, 골 골증을 풀 수 있다면...



아르헨티나 메시

브라질 카카

■ 한국팀 경기 이 곳에서 열린다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 (포트엘리자베스) ▲ 그리스시(12월 밤 8시30분) ▲ 수용인원 46,082명 ▲ 해발 20m

사커시티 스타디움 (요하네스버그) ▲ 아르헨티나전(17일 밤 8시30분) ▲ 수용인원 86,460명 ▲ 해발 1753m

더반 스타디움 (더반) ▲ 나이지리아전(23일 새벽 3시30분) ▲ 수용인원 69,957명 ▲ 해발 10m

빅매치... 빅스타... 세계가 설렌다

북한-브라질 스페인-스위스... 이 경기 놓치면 후회

‘지구촌 축구 축제’ 2010남아공월드컵이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11일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A 조 1차전 남아공-멕시코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남아공월드컵은 결승전이 열리는 내달 12일까지 총 64경기가 펼쳐진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월드컵 16강에 도전하는 허정무호의 발끝 투혼 외에도 이번 대회에는 출전 국가들간의 불만한 맞대결이 예정되어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예선 통과 한 16개국이 토너먼트를 펼치는 본선은 두말 할 것 없지만 각 조별 예선에서도 그와 못지않은 빅매치가 많다. 한 달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굴 이번 대회에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예선전의 빅매치를 소개한다.

▲C조 잉글랜드-미국 (13일 오전 3시30분) 60년 만에 ‘와나우 다리’에서 다시 만났다. 잉글랜드는 프리미어리그 스타들을 앞세워 내심 이번 대회 정상까지 노리고 있다. 그러나 북중미 최강으로 성장한 미국도 결코 만만치 않다. 주전 상당수가 EPL에서 맹활약 중인 미국은 잉글랜드를 잘 아는 클린트 펠프스(폴링)·조지 알도미어(엘시타) 등 패가 넘치는 공격 요원들이 또 한번의 ‘용가 격함’을 노리고 있다.

▲D조 세르비아-가나 (13일 오후 11시) 유럽 예선에서 프랑스를 밀어내고 7조 1위를 차지한 세르비아와 아프리카 D조 1위로 본선에 오른 가나의 경기는 조별리그 판도를 좌우할 빅 매치이다. /서원기자 swseo@kwangju.co.kr

▲E조 일본-카메룬 (14일 오후 11시) 지난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고베를 마신 일본이 ‘최소 한’ 16강을 넘기 위해선 아프리카 강호 카메룬을 넘어야 한다. 사두엘 예트오(29·인테르밀) 등 막강한 유럽 파가 버티고 있는 카메룬은 구원 꺾을 수 있을지, 4회 연속 본선 진출 후 2006 독일월드컵에 나서지 못했던 카메룬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남아공 대회를 전복시키고 있다.

▲G조 북한-브라질 (16일 오전 3시30분) 본선 진출국 중 FIFA 랭킹 1위와 골짜의 싸움, 최하위(105위)인 북한이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이며 링킹 팀인 ‘삼바군단’ 브라질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펼친다. 북한은 60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힘든 상대를 만났지만 특유의 패가 통틀을 ‘전리미’를 이 기록을 연출해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H조 스페인-스위스 (16일 오후 11시) 축구 전문가들이 꼽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 0순위 스페인. 월드컵 패마다 우승 후보에 올랐던 이번이 최절의 고베를 들었던 ‘무적함대’가 이번만은 다르다며 자신하고 있다. 페르난도 토레스(리버풀)·다비드 비아(레알 마드리드)·사비(바르셀로나) 등 유럽 무대 최고의 스타들이 만들어내는 ‘속도 축구’가 어떻게 그라운드를 수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원기자 swseo@kwangju.co.kr

메시·호날두 등 환상 드리블... 이 선수를 주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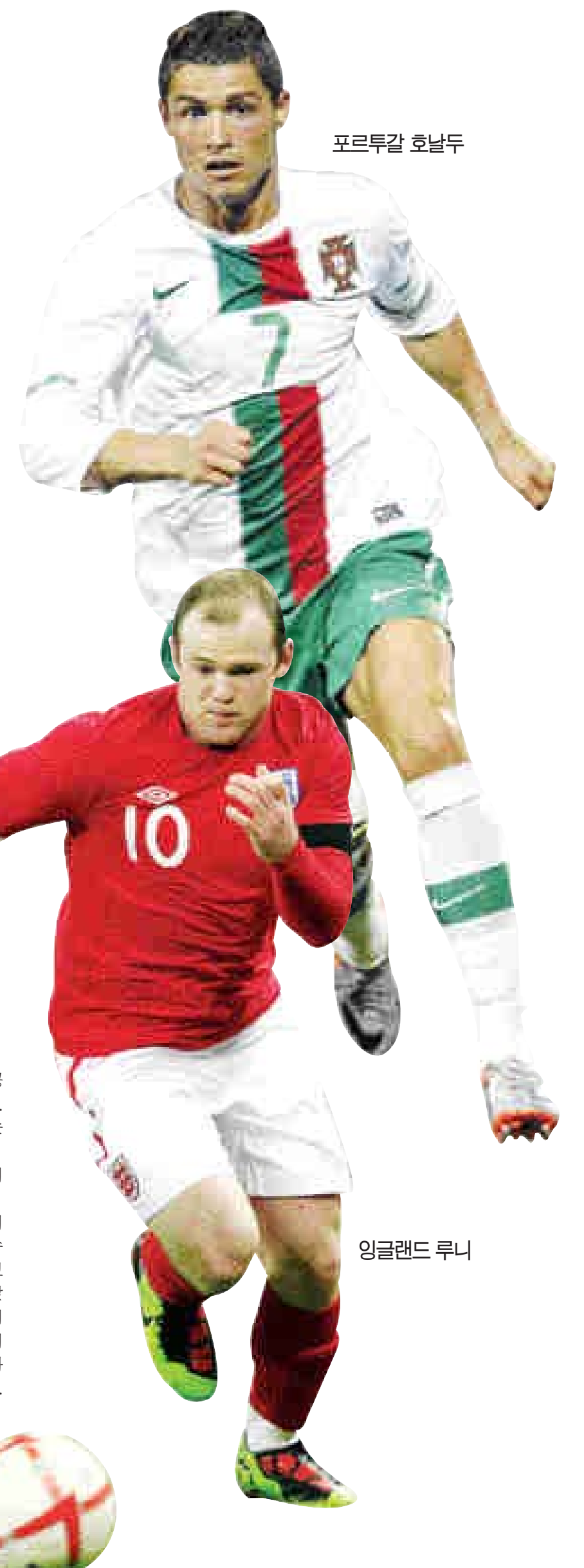
남아공월드컵과 월드컵 축구대회 ‘별 중의 별’은 누가 될까? 이번 대회에는 32개 나라에서 23명씩 총 736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먼저 이번 대회에서 세계 축구 팬들의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선수로는 단연 메시가 꼽힌다. 수입도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많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을 만큼 기량 면에서도 돋보인다. 지난 시즌 소속팀 FC바르셀로나에서 모두 53경기에서 47골을 터뜨리는 메시는 발끝을 자랑했다. ‘마라도나의 제법’으로 불리지만 디에고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감독이 “현역 시절 나보다 나은 선수”라고 칭찬할 만큼 그의 기량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하는 나라들은 모두 ‘메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머리가 아프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 역시 기자회견 때마다 ‘메시 수비법’이 야기된 나오면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맞서고 있지만 바귀 말해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에 다를 바 없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카카(브라질)가 별일 ‘한술밥 맞대결’도 불만이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년 연속 우승으로 이끌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옮긴 호날두는 이번 시즌에도 35경기에서 33골을 넣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가 떠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쟁취할 수 있다. 카카도 지난 시즌까지 이탈리아 A.C 밀란에서 뛰다가 올 시즌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호날두와 팀 동료로 만났다. ‘하얀 클레’라는 별명이 붙어주듯 특점력 외에 화려한 발차기까지 갖춘 카카는 브라질의 예시S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교롭게도 둘은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 호날두

잉글랜드 루니

A~Z로 풀이하는 남아공 월드컵

- M** Messi's worldcup(메시의 월드컵) = 2006년 독일 대회에서 최고의 관심을 모았던 선수가 포르투갈의 호날두라면, 이번 대회에는 리오넬 메시다. FIFA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현역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메시가 잡음 많은 아르헨티나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 N** Naturalization(귀화한 스타들) = 귀화는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자국인 경우 신고초료를 해서 귀화를 권유하기도 한다. 포르투갈의 데코(브라질 출신)·독일 킬로제(폴란드)·스페인 마르코스 세나(브라질)·일본 히로야(브라질) 등이 그렇다.
- O** Overcome Away game(원정 부대를 극복하라) = 홈과 원정 경기의 차이는 크다. 일방적인 승인을 받는 팀은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자국을 얻는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원정대회 첫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2002년 4강 신화가 무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P** Park Ji Sung Effect(박지성 효과) =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한국팀 주장이자 공수의 백인 그의 존재는 각별하다.
- Q** Quivering Japan(4강이 목표라고 떠벌린 뒤 잃고 있는 일본) = 오카다 감독이나 일본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전 성적도 부진한 데다 조 편성도 쉽지 않아 속이 타고 있다. 이란에도 목표가 4강이라고 허세를 부렸으나, 개막일 다가오는 게 두렵기만 하다.
- R** Revenge(복수혈전) = 오라 기다리다. 특정한 두 나라가 함께 월드컵에 나서기도 어렵고, 나산다 해도 같은 조에 묶이기가 어려운데 이번 대회에는 잊지 못할 인연이 있는 팀이 두 쌍이나 있다. G조의 북한-포르투갈이 44년 만에, G조의 미국-영국이 60년 만에 맞대결한다.
- S** Security(복수혈전) = 남아공 당국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테러위험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현역 인원은 월드컵을 노린 동시다발적이고 무차별적인 테러 음모가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T** Two Korea(남북한 사상 첫 동반출전) = 한국이 7회 연속 8번째 월드컵에 출전하고, 북한이 1966년 이후 44년 만에 본선출전을 따내면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이 동반출전하게 됐다.
- U** Unwarranted prejudice(부당한 편견) = 리베레, 캄베사, 자네리(이상 아르헨티나)와 투카 토니와 카사노(이탈리아), 알 나스리(프랑스)의 대표팀 탈락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감독과 맞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 V** Vacuum Cleaner(새 진공청소기는 누구) = 원조 진공청소기 김남일이 건재한 가운데 수제형 미드필더 김정우와 중앙수비수 이정수 조영형의 활약이 기대된다. 아직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불안하다.
- W** Watch Out!(조심해야 할 복병) = 코트디부아르·카메룬·북구의 다크호스 덴마크·유럽 같은 아시아팀 호주 등이 꼽힌다.
- X** X-Factor (간파하기 쉬운 승패의 변수?) = 불어난 처안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팀들은 경기 외적인 부담을 안아야 한다. 엄청난 반발력으로 선수들을 당황케 하는 공안무 자발러나, 고지에서의 체력 문제 등도 승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Y** Yellow card on feint(페널티권 속임수장 경고받는) =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규정을 만드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페널티권 때 키커가 공을 차기 직전에 하는 속임수공격을 금지시켰다. 이게 어떤 경우엔 경고를 받고 다시 차야 한다.
- Z** Zakumi(마스코트 자쿠미) = 이번 월드컵 마스코트인 자쿠미는 남아공어를 뜻하는 ‘ZA(Zuid Afrika · 네덜란드어)와 ‘Kumi’(10이 란 뜻을 지닌 흑인 언어)의 합성어로 ‘남아공 2010년’을 뜻한다.

제주도가 더 가까워집니다.

7월2일~16일 온라인지오 워킹가뮌 특가

1. 대량해 제주관광 1박2일 ₩99,000~
2. 당량해 제주관광 2박3일 ₩119,000~
3. 시원한 제주공프 1박2일 ₩240,000~
4. 내장대로 자유여행 2박3일 ₩79,000~

☎ 예약문의 : 062-2515-2231 062-973-9114 062-269-9363

초 쾌속 오션지오 워킹
장흥 노륙향 - 제주 상산향
배양 2회 운양 (1시간 40분 소요)

7월2일~16일 온라인지오 워킹가뮌 특가

1. 대량해 제주관광 1박2일 ₩99,000~
2. 당량해 제주관광 2박3일 ₩119,000~
3. 시원한 제주공프 1박2일 ₩240,000~
4. 내장대로 자유여행 2박3일 ₩79,000~

☎ 예약문의 : 062-2515-2231 062-973-9114 062-269-9363

후등산 햇길에서 신조들의 햇 정취를 느껴 보세요

후등산 햇길에서 신조들의 햇 정취를 느껴 보세요

후등산 햇길에서 신조들의 햇 정취를 느껴 보세요

후등산 햇길에서 신조들의 햇 정취를 느껴 보세요